

특집

재벌기업의 금융권 점유 현황

금융개편, '재벌 私 금융화'

80년대 이후로 진행된 일련의 금융산업 개편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축적에 진행될 것을 예고해 준다.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성장한 독점자본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기존의 '관치 금융'의 폐해를 주장하고 금융의 자율화, 대형화, 국제화 등을 요구하였다. 은행이 민영화되고 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이점은 독점자본이 금융을 장악하고, 이를 독점으로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단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81년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실시되어 재벌은 '은행의 사금고'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은행에 대한 지배를 노리게 되었다. 89년 현재 재벌들은 상업은행 총지분의 25.2%, 한일은행의 33.4%, 제일은행의 32.9%, 서울신협은행의 25.9%, 조흥은행의 35.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은행에 대한 직접적 지배의 물리적 기초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은행의 경우에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이 한두개의 재벌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고 있어서 사실상 연고재벌의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강원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은 각각 현

대, 금호, 롯데 그룹의 계열기업이나 마찬가지로인 정도이다.

재벌은 제2금융권으로도 지배 영역을 확장해 왔다. 지금까지도 투자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신설하거나 인수하여 계열화하려는 재벌들의 경쟁적 노력은 계속된다(삼성, 신정, 롯데 등 증권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재벌그룹이 얼마나 증권업 진출을 갈망하고 있는가). 50대재벌은 89년말 현재 23개의 투자금융회사, 20개의 증권회사, 11개의 보험회사, 2개의 종합금융회사를 갖고 있다. 이것은 각각 전체 총수의 71.9%, 80.0%, 40.7%, 33.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재벌이 소유한 금융회사가 다른 중소기업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벌이 금융산업에 거의 장악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재벌은 게다가 리스업, 신용카드업에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금의 확보 그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된다. 더구나 과거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그것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기업경영의 절대적 요소였다. 즉 '돈줄'을 돈돈하게 해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실제로 65-69

년간 법인기업의 외부금융비율은 69.4%였고, 70-74년간에는 69.6%, 75-79년간에는 75.4%, 80-84년간에는 72.4%로서 60년대 이래 기업소요자금의 70% 정도는 항상 외부에서 조달되었다. 특히 재벌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서 90년 50대재벌의 부채비율이 375.5%로서 기업 평균부채비율보다도 100%이상 높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 8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도

말해준다. 은행 이외에 직접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들은 동일계열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회사채 인수 등으로 재벌의 튼튼한 돈줄 역할을 한다.

또한 재벌은 금융부분 계열기업을 자신의 직접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하는 외에도, 다른 한편 간접적으로 자본(주식)시장까지 지배하면서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시장이 8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함으로써 독점자본은 막대한

배는 항상적 유희화폐자본을 남기고, 따라서 투기 이외에는 갈 곳이 없게 되는 그것이 바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기생성이다.

금융은 원래 사회적 생산과 소비에 불가결한 돈을 공급하면서 그 영역에서 벗어난 돈을 집중하고, 이것을 다시 생산과 소비의 영역으로 환류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자본축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런데 금융이 독점자본에 장악되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면 비독점자본, 곧 중소기업이 살아야 할 운명은 정해져 있다.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에 포섭되어 그 이해에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전체가 독점자본의 이해에 종속될 물질적 기초가 성립된다. 독점(산업)자본에 의한 금융부분의 지배, 금융부분을 포함한 독점자본, 여기서 '은행'과 산업의 융합 또는 유착'으로 설명되는 금융자본 범주의 유용성이 제기된다.



◇...금융 민영화에 따른 독점재벌의 금융지배가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이 두 종류의 독점이 융합해서 나타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범주로 정의된다. 물론 한국에서 금융자본의 성립여부가 은행(금융)부분에서의 집적과 집중을

제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단자회사들을 정리하여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합병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쇄적 반응으로서 증권회사와 은행들의 대항화를 피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재벌의 계열기업인 대규모 금융기업들이 살아남아 독점자본에 의한 자본의 집적·집중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본이라는 아직은 낯설은 방향으로 자본축적이 진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은 분리된 채 존재했었다. 재벌은 은행자본을 틀어쥔 국가권력과는 따로 떨어진 채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두 자본형태가 보이면 독립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들은 상호 유착·융합하여 두 형태로 존

재하던 자본은 새로운 유형의 자본에게 집중된다. 우리는 이 땅을 '민간주도'의 금융이 시작되어 재벌지배가 형성되는 것에서 보고 있다. 새로운 금융자본은 모든 형태의 자본에 침투해 들어간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적 착취기구를 통해 민중은 착취·수탈되고 금융자본의 축적은 강화된다. 금융자본의 정점에서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소수의 지배자집단(금융과두제)은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기초로 정치에 대해서도 막강한 발언력을 행사한다. 한 나라의 사회생활 전체가 이들에 의해 지배된다. 자본축적의 반민중성은 점점 더 증대되는 것이다.

김 준 석
(서울대 석사졸·경제학)

독점기업 자본집중위한 시중은행 민영화 30대 재벌 국내총여신의 58.3% 차지

태된 재벌이 다수 존재했다는 경험을 통하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안고 있는 재벌들이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마련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현재 각 금융부분의 계열기업들이 재벌의 자금조달창구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상당하다. 89년 30대재벌에 대한 여신이 국내총여신의 58.3%가 된다는 것은 재벌에 대해 여신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자본이득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신속하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집중하였다. 30대재벌의 연간 이익금 중 자본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3.4%나 되었던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이 자본집중의 결과가 증권과 부동산의 투기로 나타났음은 이미 우리모두가 알고 있다. 독점자본에 의한 금융지

금융자본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질의 자본축적이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점자본의 금융지배라는 오늘 우리의 현상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은행(금융)부분에서 집적과 집중에 기초한 독점이 성립하고,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최근의 금융산업개편에 관한 논의로 타당성과 유용성을 다시 한 번 검토받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개편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경쟁력 강화의 명목으로 금융기업들의 대형화,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



현 장 취 재

“독재정권 바람막이
판제 언론 타도하자”

지난 16일 '박승화·김영국 투쟁 정신계승 및 편파왜곡 보도 조선평보 규탄대회'가 서울지역 대학 언론 협의회 학생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강대 청년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양원욱 서연협장은 “이제 우리 대학언론인들은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여 '조선일보'국필의 역사에, 중지를 뿌리고자 한다”며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지하철 시청각에서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방현기 記者)



김 미 령
(본보 문화부장)

“시각이야 어쨌든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왜들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 일지도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써대는지 모르겠다. 기자들에게 절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

故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가 한 말이다. 신문에서 한 개인의 말이 와전되는 건 어쩌면 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전체 다수의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여론조작에 비교한다면 말이다.

얼마전 한보의 수서비리사건에서 언론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한보의 사장이 국회의원은 물론 제도권 일간지에도 소위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뇌물을 받지 못한 한 일간지에 의해 중점적으로 밝혀지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제도 언론만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언론공작으로 원한(?) 마무리는 지어졌으나 지금 와서 그 당

시의 망령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권 일간지들이 강경대 열사사건 이후 증폭되고 있는 집회의 규모를 눈여겨보라라 급급해하는 한심한 모습이 그것이다. 실제로 며칠전 있었던 남대문 근처 집회에서 시위대는 “한적한 곳만 골라 찍어 시위 규모를 축소 보도하고 있는 방송사 기자들은 아예 취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기자들

대중의 요구 바로 알아야

달리고 있는 듯하다. 대중들을 향한 의식조작의 칼날은 대중들을 정권 통치자의 기호와 입맛에 맞게 깎아지르려는 역할을 한다.

일간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일간지는 그 시대의 역사이며, 대학신문은 그 시대의 양심이라고까지 하며 일간지들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제도언론은 언제나 강자의 편, 불의의 편에서 서

제도언론의 자리찾기

을 현장에서 추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 기자들은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청와대에 불려갔다 온 뒤부터 편집방향에 중점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각 공화국이 출현할 때마다 그 시대의 대표적 언론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언론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제4의 권력이라는 제도 언론들의 행각은 그 한계수치를 향해 험악하게(?) 치

말 그대로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또한 지금도 스스로 알아서 충실하고 있다.

이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의 한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과연 제도언론은 그 시대의 역사를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해 왔는가.

‘앵무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정권의 충실한 앵무새로 기능하는 꼴을 보면 한심한 정도를 넘어 분노의 선에 닿고 있다. 지배계급의 여론통제와 허구적인 반동이데올로기 전담의 최선봉에

서 열심(?)노력하는 제도권 일간지들 우리는 언론기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확인 없이, 심지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소해 보도하는 그들이 하는 작업이란 ‘청와대 브리핑’뿐일 것이다.

최근 언론들의 보도관행을 보면 그들의 산만한 보도와 추측보도에 결과적으로 최근 신문·방송의 태도는 80년대초부터 비대한 언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감히 언론을 부를 정도로 그들은 차츰 심조차 없지 않은가.

70년대를 떠들썩하게 마감했던 정권 속사건을 다른 소설(박영환작)이 있다.

사건 취재를 맡은 젊은 행정관 기자는 사건이 단지 단순살해가 아닌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의 현 단면임을 느끼며 더욱 사건해결에 집착한다. 결국 보지 않는 것은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하는 신참 기자지만 갖은 압력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는 치열한 모습은 감동적이다.

치열한 기자정신, 그리고 대중의 분열되는 이해와 요구를 담보해낼 수 있는 언론의 자리찾기와 사명감 회복이 절실하다.



유공은 13개국, 16개 광구의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여 우리가 캐낸 석유를 직접 국내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유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石油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우리 손으로 석유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80년대초부터 13개국 16개광구의 석유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예멘의 마리브 유전개발에 성공, 이미 '87년 말부터 하루 2만배럴의 우리가 캐낸 석유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SK-7 광구와 이집트 북자라나광구에서도 석유를 발견, 현재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공은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미얀마(旧 버마) 친드윈 지역의 블럭 C광구 개발에 참여, 미국·영국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들과 경쟁, 단독으로 운영권을 획득함으로써 석유 탐사에서 시추, 생산, 정제, 판매까지 일괄체제를 갖춘 메이저 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공은 에너지 거점없는 밝은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유공이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곳
- 예멘(마리브) ● 말레이시아(SK-7) ● 오스트레일리아(AC/P-11) ● 이집트(북자라나/자라나)
 - 에콰도르(B-12광구) ● 미얀마(블럭 C) ● 아랍에미리트(리프 알 카이마) ● 인도네시아(와일광구)



(주)신정·신정인더스트리·주SKC·신정에너지·신정화학·주유공·유공에너지·주유공가스·유공에너지·주유공화학·주유공석유